

明末 男性 同性愛 소설 비교 연구

최윤주*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소설 작품에 나타난 명말의 보편적 남성 동성애 양상
 - 2) 소설 작품에 나타난 명말의 특수한 남성 동성애 양상
 - 3) 명말 남성 동성애에 대한 복잡한 서술 심리 분석
 - (1) 인물 묘사에 대한 모순적 서술
 - (2) 남성 동성애에 대한 모순적 태도
3. 결론

1. 서론

明末 쾌락적 풍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남성동성애는 당시 사회 전체에서 유행하였으며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¹⁾²⁾ 당시 이러한 풍조를 이끈 것은 지식인층

* 숙명여자대학교 중문학부 석사 졸업. 南開大學 文學院 박사 졸업.

1)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114쪽.

2) 남성 동성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여성 동성애도 존재하겠지만 역사상 이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이는 남성 중심의 한 사회에서 남성끼리 관심을 갖고 성관계 갖는 것이 허용되고 심지어 '남성과의 동침'까지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는 반면 여성의 생리적·심리적 요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단지 집에서 남자를 기다리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도구였으며, 여자가 만일 성에 흥미를 갖기라도 하면 '淫風'·'淫行'이라고 여겼다. 동성애 역시 이와 같았으므로, 여성 동성애의 비밀은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어느 특수한 시대의 특수한 지역,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또한, 여성 동성애는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남성 동성애처럼 사회적으로 풍조를 형성한 적이 없었다. 명 중후기의 몇몇 소설 작품에서 아주 드물게 여성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 동성애만을 묘사한 작품은

으로 그들에게는 동성 연인이 있었고, 이러한 풍류 스캔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동성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과 부유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명말 문학가 張岱는 자신의 묘지명에 젊어서 좋아했던 것들을 열거하며 ‘미소년(戀童)’을 언급하기도 했다.³⁾ 당시 성행하던 남성 동성에 풍조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는 明代 謝肇淛의 기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남색을 말하는 자들이 閩廣에 많다고 하지만 吳越과 燕雲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근래에는 京師의 小唱이 전문적으로 술 시중을 든다. 관리들이 창기를 끼고 노는 것을 금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모두 浙江이나 寧紹인들이었는데, 지금은 반이 臨淸인들이다. 그래서 남북 소창의 구별이 생겼다. 그런데 이 많은 이들 중, 간간히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풍류를 좋아하는 자들이 계속 만나기를 청하는데, 온 나라가 미친 것 같다. 이 또한 대단히 우스운 일이다. 외지에 임직한 이들은 문지기로 자기 시중을 들게 하는데, 이 또한 문지기로 남색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⁴⁾

찾을 수가 없다. 이처럼 남성 동성애와 여성 동성애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 놓고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남성 동성애만을 다루고자 한다. 여성 동성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유달림, 강영매 역, 『중국의 성문화(하)』, 서울, 범우사, 2012, 348-354쪽 참조.

- 3) 묘지명 전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장다이는 촉(蜀)에서 이주한 집안 출신으로, 호는 도암이었다. 젊어서는 명문가의 도련님으로 번잡하고 화려한 것을 몹시 사랑했다. 그는 정사(精舍), 아름다운 여종, 미소년(戀童), 산뜻하고 고운 옷, 맛있는 음식, 준마, 화려한 등, 불꽃놀이, 극단(梨園), 북과 피리, 골동품, 화조도를 사랑했다. 그 밖에도 차를 즐기고, 꿀을 좋아하고, 책에 빠지고, 시에 미쳤다 이런 것을 좋아하며 반평생을 허비했는데, 이제는 모두 꿈과 환상이 되고 말았다. 그의 나이 스물이 되었을 때 나라가 없어지고 집안이 망했다. 그는 종적을 감추고 산속에서 살았다. … 그는 배움을 입었고 채소를 먹었으며 자주 끼니를 걸렀다. 20년 전을 되돌아보며 정말로 격세지감을 느꼈다.” 조너선 D. 스펠스, 이준갑 역, 『릉산으로의 귀환』서울, 이산, 2010, 275쪽 재인용.
- 4) 謝肇淛, 『五雜俎·卷八』,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146쪽. “今天下言男色者, 動以閩廣爲口實, 然從吳越至燕雲, 未有不知此好者也. … 今京師有小唱, 專供縉紳酒席, 蓋官伎既禁, 不得不用之耳. 其初皆浙之寧紹人, 近日則半屬臨淸矣, 故有南北小唱之分. 然隨群逐隊, 鮮有佳者, 間一有之, 則風流諸縉紳, 莫不盡力邀致, 舉國若狂矣, 此亦大可笑事也. 外之仕者, 設有門子以侍左右, 亦所以代便辟也.”

사조제의 기록을 보면 남성 동성에 풍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京師 지역에서는 小唱과 문지기가 풍류자재와 관리들의 남색 상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가 이렇게 남색에 열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조제는 ‘관리들이 창기를 끼고 노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大明律』에 따르면 관리가 宿娼을 할 경우 곤장 60대의 처벌을 받았다.⁵⁾ 이러한 엄격한 규율 아래서 관리들은 자신들의 욕정을 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고, 소창이 자연스레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소창 외에 관아의 문지기와 노복들도 외지에 부임한 관리들의 욕정 해소의 대상이 되었다. 江南 지역에서는 동성 관계의 피동인물을 담당하는 부류를 따로 小宦이라고 칭하였고, 이들은 대부분은 大老宦이라 불리는 연상의 부호들과 동성 관계를 맺었다. 전국을 유행한 이 풍조는 소설 작품에도 영향을 주어, 『金瓶梅』에서 西門慶과 書童을 통해 남성 동성에 관계를 묘사하는가 하면, 『繡榻野史』, 『癡婆子傳』 등의 색정소설에서도 이성애와 함께 남성 동성애를 다루기도 하였다. 이후 남성 동성애만을 전문적으로 쓴 『龍陽逸史』, 『弁而釵』, 『宜春香質』 등의 소설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명말 남성 동성애 풍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明代 사람들이 비록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것은 동성애의 주동인물에 한해서였으며 피동인물은 언제나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동성애는 위에서 아래로 혹은 주인이 노복에게 하는 일종의 성적 유희였다.⁶⁾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몇몇 작가들은 시대적 한계를 돌파하여 동성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그리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말의 보편적인 남성 동성애 양상과 이와 대조되는 특수한 남성 동성애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당시 남성 동성애에 대한 지식인층의 복잡한 서술태도와 심리상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5) 「官吏宿娼」, 『大明律』卷二十五：“凡官吏宿娼者, 杖六十, 媒合人減一等.”

6)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151쪽.

2. 본론

1) 소설 작품에 나타난 명말의 보편적 남성 동성애 양상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명말에는『금병매』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인정소설에 얼마간의 남성 동성애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연의나 무협소설까지도 이 풍조에 대해 한 두 번씩은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 현상을 매우 흔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명말 출판된 백화소설에서 남성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는『金瓶梅詞話』, 『繡榻野史』, 『昭陽趣史』, 『隋煬帝豔史』, 『歡喜冤家』, 『喻世明言』, 『警世通言』, 『初刻拍案驚奇』, 『石點頭』, 『禪真逸史』, 『禪真後史』, 『醋葫蘆』, 『宜春香質』, 『弁而釵』, 『龍陽逸史』, 『玉閨紅』, 『型世言』, 『西湖二集』, 『醉醒石』, 『檣杵閑評』, 『水滸後傳』, 『浪史』 등을 들 수 있다. 작품의 편폭 면에서 보았을 때, 장편·중편·단편 모두 이러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이 人情소설이지만『禪真逸史』, 『禪真後史』와 같은 神魔소설이나『檣杵閑評』 같은 時事소설, 『水滸後傳』 같은 英雄소설에서도 남성 동성애를 묘사하고 있어 당시 이 풍조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다. 이들 작품 중『宜春香質』, 『弁而釵』, 『龍陽逸史』세 작품만이 남성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거의 모두 이성애 위주의 서사를 취하고 있으면서 부차적으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 각 작품에 나타난 동성애 대상과 유형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⁷⁾

작품명	동성애 대상(좌: 주동/ 우: 피동)	동성애 유형	연령(좌: 주동/ 우: 피동)	
金瓶梅詞話	西門慶과 畫童	주인과 노복	西門慶 28-33세	畫童 18세
	西門慶와 노복 王經	주인과 노복	西門慶 28-33세	王經 미상
	溫秀才와 畫童	주인과 노복	溫秀才	畫童 미상

7) 이 표는 필자의 博士論文『明清小說中的同性戀故事研究』에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40세 전후		
	道士 石伯才와 두 도제	스승과 제자	石伯才 40세	제자들 16세	
	道士 金宗明과 陳經濟	스승과 제자	金宗明 30여세	陳經濟 24세	
	土作頭兒 侯林兒와 陳經濟	미장이와 도사	侯林兒 미상	陳經濟 24세	
繡榻野史	東門生과 小秀才 趙大裏	서생과 서생	東門生 25세	趙大裏 13세	
昭陽趣史	江都中尉 趙曼과 馮萬金	관리와 소관	趙曼 미상	馮萬金 16-17세	
隋煬帝豔史	隋煬帝와 小黃門 柳靑	황제와 男寵	隋煬帝 35-49세	柳靑 미상	
歡喜冤家	牢頭와 小官 章必英	옥졸과 소관	牢頭 미상	章必英 18세	
	李禁子와 小官 章必英	관리와 소관	李禁子 미상	章必英 18세	
	土財主 朱子貴와 小官 張揚	부호와 소관	朱子貴 28세	張揚 17세	
	富豪 龍天定과 小官 張揚	부호와 소관	龍天定 26세	張揚 17세	
喻世明言	漢文帝와 鄧通	황제와 男寵	미상	미상	
警世通言	龜精과 秀才 魏宇	요괴와 서생	龜精 미상	魏宇 17세	
拍案驚奇	道士 黃知觀과 두 명의 道童	스승과 제자	미상	미상	
	老僧 大覺과 徒弟 智圓	스승과 제자	大覺 57-58세	智圓 미상	
	林斷事와 문지기	관리와 문지기	林斷事 미상	문지기 20세	
石點頭	王仲先과 潘文子	서생과 서생	王仲先 19세	潘文子 17세	
禪真逸史	杜子虛의 師傅와 道童 杜子虛	스승과 제자	師傅 미상	杜子虛 12세	
	管賢士와 小官들	사대부와 소관	管賢士 30여세	미상	
禪真後史	塾師 邊薦와 小廝 錦簇	학숙선생과 노복	미상	미상	
醋葫蘆	紈袴子弟 都繩과 小官 盛子都	귀족자제와 소관	미상	미상	
宜春香質	風集	學兄 李尊賢와 小官 孫宜之	서생과 소관	李尊賢 18세	孫宜之 12세
		家仆 書僮와 孫宜之	주인과 노복	書僮 17세	孫宜之 12세
		孫三과 書僮	주인과 노복	孫三 미상	書僮 17세
		孫三과 孫宜之	형제지간	孫三 미상	孫宜之 12세
		學塾先生 鍾萬祿과 孫宜之	스승과 제자	鍾萬祿 미상	孫宜之 14세
		無賴 虎裏蛆와 孫宜之	무뢰배와 소관	虎裏蛆 미상	孫宜之 14세
		同學 18명과 孫宜之	서생들과 소관	동학들 미상	孫宜之 14세
		도사들과 孫宜之	도사와 소관	도사들 미상	孫宜之 14세
	花集	客商 謝公綽과 小官 單秀言	상인과 소관	미상	미상
		商人 和相公과 單秀言	상인과 소관	미상	미상
		豪族 鐵生과 單秀言	호족과 소관	미상	미상
	雪集	大老官 祁龜와 小官 伊人愛	대노관과 소관	祁龜 미상	伊人愛 12-13세
		大老官 商新과 小官 伊人愛	대노관과 소관	商新 미상	伊人愛 12-13세
		宜男國 國王과 鈕俊	국왕과 남황후	국왕 미상	鈕俊 16세

		羅囉國 國王과 鈕俊	국왕과 남황후	국왕 미상	鈕俊 16세
弁而釵		翰林 鳳翔과 趙王孫	서생과 서생	鳳翔 20세 미만	趙王孫 15세
		才子 匡時와 男妓 李又仙	서생과 男妓	匡時 30세	李又仙 15세
		才子 雲漢과 唱旦 文雅全	서생과 배우	雲漢 미상	文雅全 15세
		秀才 鍾圖南과 武官 張機	무관과 수재	鍾圖南 미상	張機 14세 이상
龍陽逸史	1회	秀士 韓濤와 小官 裴幼娘	대노관과 소관	韓濤 미상	裴幼娘 15-16세
		秀士 韓濤와 小官 裴幼娘	대노관과 소관	韓濤 미상	楊若芝 미성년
		醫人 詹復生과 小官 楊若芝	대노관과 소관	詹復生 미상	楊若芝 미성년
	2회	大老官 邵囊과 小官 李小翠	대노관과 소관	邵囊 미상	李小翠 13-14세
	3회	大老官 湯信之와 小官 唐半瓊	대노관과 소관	미상	미상
	4회	秀士 寶樓와 小官들	대노관과 소관	미상	미상
	5회	商人 鄭東과 老小官 劉玉	대노관과 소관	鄭東 미상	劉玉 20세 이 상
	6회	錢員外와 小官 秋一色	대노관과 소관	錢員外 미상	秋一色 15-16세
	7회	富家子弟 姚瑞과 小官 史小喬	대노관과 소관	姚瑞 미상	史小喬 10세 전후
	8회	小官 範六郎의 매음 영업	대노관과 소관	미상	範六郎 15-16세
	9회	儲玉章와 小官 劉細兒	대노관과 소관	미상	미상
	10회	西昌지역의 小官營	대노관과 소관	미상	미상
	11회	外郎 沈葵와 小官 韓玉仙	대노관과 소관	沈葵 미상	韓玉仙 17세
	12회	大老官 高綽와 小官 滿身騷, 滿身臊	대노관과 소관	미상	미상
	13회	童生 鄭白甘과 學生 劉珠, 蘇惠郎	스승과 제자	鄭白甘 미상	劉珠 21세 蘇惠郎 15-16세
	14회	小官 小潘安의 일생	대노관과 소관	대노관 미상	小潘安 14-15세 이 상
	15회	小官 崔英의 인생여정	대노관과 소관	대노관 미상	崔英 15세
	16회	秀才 逢春과 小官 何冕	대노관과 소관	미상	미상
17회	陳員外와 小官 馬天資	대노관과 소관	陳員外 미상	馬天資 14-15세	
18회	草寇 汗弓孫과	산적두목과 소관	汗弓孫 미상	葛妙兒	

		小官 葛妙兒			25-26세
19회		光棍 烏良과 小官 花資	건달과 소관	烏良 미상	花資 16세 미만
		範公子와 小官 花資	대노관과 소관	範公子 미상	花資 16세 미만
20회		石敬岩과 石得寶	친척 관계	石敬岩 아버지 연배	石得寶 13-14세
玉闥紅		無賴 於得山과 小廝	무뢰배와 남중	미상	미상
型世言		無賴 朱愷와 小官 陳有容	무뢰배와 소관	朱愷 20세 미만	陳有容 미상
		襄龍과 陳有容	대노관과 소관	미상	미상
		何知縣과 小官 張繼良	관리와 소관	何知縣 미상	張繼良 16세
	陳代巡과 小官 張繼良	관리와 소관	陳代巡 미상	張繼良 16세	
西湖二集		蒙古人 偉兀氏와 小廝 剝伶兒	주인과 노복	偉兀氏 미상	剝伶兒 16세
醉醒石		小官 王勤의 동성애 활동	대노관과 소관	미상	王勤 14-15세
禱机閑評		王公子와 優伶 魏雲卿	사대부와 배우	王公子 20세	魏雲卿 미상
		程中書와 魏進忠	관리와 소관	미상	미상
水滸後傳		無賴 竺大立과 小夥子 芳哥	무뢰배와 소년	竺大立 미상	芳哥 15-16세
浪史		梅素先과 노복 陸珠	주인과 노복	梅素先 18세	陸珠 16세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설 작품 22부에서 볼 수 있는 남남 관계는 모두 76가지로, 인물들의 신분과 나이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신분과 연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자체가 명말 남성 동성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주동인물은 적게는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50-60대까지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28세이다. 피동인물의 연령은 적게는 12세부터 시작해 많게는 25-26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5-16세이다. 이를 통해 주동인물과 피동인물의 연령이 기본적으로 10세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흥미로운 점은 한 두 케이스를 제외하고 주동인물의 나이가 피동인물보다

8) 표에 연령이 언급되지 않은 인물들은 대부분 소설 작품의 부차적인 인물, 즉 조연들이다. 이들의 나이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의 직업으로 보아 대부분 나이를 가늠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金瓶梅』에서는 畫童의 연령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어린 남자 시종으로 묘사되고 있어 그의 나이를 적게는 10대 초중반에서 많게는 20대 전후까지로 잡을 수 있다. 이는 각 작품들의 연령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연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동인물의 연령은 거의 10대 초중반이라는 것이다.

신분 유형을 살펴보면, 총 76개의 케이스 중 눈에 띄는 것으로 주인과 노복, 대노관과 소관, 관리·부호·사대부·상인·호족 등과 소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학숙을 배경으로 한 관계도 적지 않을 뿐더러, 도사나 승려 사이의 동성에 또한 자주 볼 수 있다. 이외에 미장이, 옥졸, 요괴, 산적 두목, 무뢰배 심지어는 형제나 친척 관계 등의 관계까지 서술하고 있어 당시 남성 동성애가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노관과 소관의 관계이다. 대노관은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던 말로, 나이가 많고 재물과 세력을 가진 부호를 가리킨다. 이들 대부분 음란함을 좋아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⁹⁾ 소관은 강남 일대 동성애에서 오로지 피동 역할만 담당하며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젊은이를 일컫던 호칭이다.¹⁰⁾ 즉, 대노관과 소관은 당시 남성 동성애가 매우 성행하던 강남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나이 많고 돈 있는 부호와 어린 미소년 사이의 매음을 전제로 한 계약관계'로 요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남성 동성애 관계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관계는 주인과 노복의 관계로, 서문경과 서동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서동처럼 소관과 家奴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는 특이하지만 명말에 흔히 볼 수 있는 관계였다. 주인은 대부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복을 취하려 하였고, 이런 경우 노복들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피동인물의 경우 동성애 관계를 맺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주인을 따라야 했다. 관리·부호·사대부·상인·호족 등과 소관의 관계 또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이다. 크게 보자면, 주동인물들은 권력 혹은 금전적으로 피동인물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로, 동성애 관계를 통해 피동인물은 금전적 보상 혹은 다른 유형의 이득을 취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들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의해 맺어져 있으며, 이 이해관계가 끝나는 경우 동성애 관계도 같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숙을 배경으로 한 남성 동성애 관계는 당시 유행한 '翰林風'¹¹⁾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외에 학숙 선생과 제자 혹은 선

9) 施曄, 『中國古代文學中的同性戀書寫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490쪽.

10)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138쪽.

생과 어린 중 사이에도 이러한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공간적으로 특수한 배경을 가진 것에는 사묘와, 사원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인들의 사제 간 동성에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동성에 관계는 현대적 술어로 '상황적 성태도(Situational Sexual Behavior)'라고 하며, 중국의 성사회학자 李銀河는 "이러한 현상을 조장하는 것은 소위 單性環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異性과 완벽히 격리된 환경,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감독, 군대, 정신병원, 남자기숙사나 여자기숙사, 남자수도원이나 여자수도원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¹²⁾ 즉, 단일한 성만 존재하는 곳에서 이러한 동성에 관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미장이, 옥졸, 요괴, 산적 두목, 무뢰배 등도 남성 동성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남성 동성에 관계는 당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남성 동성에 풍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술한 명말 남성 동성의 신분별, 상황별, 연령별 유형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주동인물과 피동인물의 관계가 매우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들의 신분과 연령 면을 보면 더욱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주동인물의 대부분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인물들로, 피동인물 보다 우위에 있는 지위나 재물을 통해 피동인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의 몸을 사게 된다. 반면, 피동 인물은 주동 인물에 비해 지위나 재력을 가진 자가 거의 없고 매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령 면에서도 주동인물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반면, 피동인물은 '미색'에 기대어 자신의 몸을 사고팔아야 하므로 2차 성징이 오지 않고 여성과 같은 외모를 가진 10대가 대부분이다.

둘째, 소설 속 남성 동성에 관계를 맺는 주동인물들은 남성 동성을 함과 동시에 이성에 또한 배척하지 않는다. 현대적 술어로 표현하자면 '양성애자'의 성적 취

11) 翰林 사이에서 발생한 남성 동성을 가리킨다. '한림풍'의 탄생은 서생들 사이에 남색에 대한 기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주목을 받아 생겨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림에서 이들의 관계는 童生일 때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숙에 있을 때부터 남색 풍조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張在舟, 『曖昧의曆程—中國古代同性戀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1, 230쪽 참조.

12) 李銀河, 『同性戀亞文化』,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9, 56-57쪽.

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清代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이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동인물에게 있어 피동인물이 성적 유희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성애를 배경으로 한 동성에 풍조에서 사회는 소관의 여성화를 요구하였으며, 소관 본인도 불러 모은 고객들을 위해 여성처럼 질게 화장하고 손톱을 기르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이름답게 꾸몄으며, 여성의 느낌이 강한 이름을 사용했고, 심지어는 꽃, 고양이, 봉황 등을 수놓는 바느질까지 배워 익혔다.¹³⁾

셋째,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 인해 교제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당시 보편적인 남성간의 관계는 주동인물의 성적 유희 충족, 피동인물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맺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쌍방 중 한 쪽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들의 관계는 일회성에 그치기도 했다. 『龍陽逸史』 2회에서는 소관 李小翠와 부호인 邵囊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해 소낭은 이소취의 집에 30금을 주고, 의복은 춘하복을 주며, 이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의논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둘 모두가 원하던 것이니 각자 다른 말은 하지 않는다. 만약 반복할 일이 있으면, 원래 의논했던 사람들끼리 다시 이야기를 나눈다. 후일에 신빙성을 위해 이 계약을 작성하여 각자 하나씩 가지고 증거로 한다.¹⁴⁾

이를 통해 당시 남성 동성에 관계가 애정 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계약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명말의 남성 동성에 풍조는 겉으로는 매우 공평하고 긍정적인 것 같지만, 이는 주동인물, 즉 지배층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피동인물들은 불평등한 생존 환경 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명말 남성 동성에 풍조는

13)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145쪽.

14) 吳存存, 『龍陽逸史與晚明的小官階層』, 『中國文化』, 제2기, 1995, 212-213쪽 재인용. “每歲邵奉李家用三十金, 身衣春夏套, 外有零星用廣, 不入原議之中. 此系兩家情願, 各無異說. 如有翻覆等情, 原議人自持公論. 恐後無憑, 立此議單.”

현대적인 의미의 진성한 사랑을 내포한 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며, 지배층 남성 중심의 성적 유희 풍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설 작품에 나타난 명말의 특수한 남성 동성애 양상

상술한 바와 같이, 명말의 남성 동성애는 주동인물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관계가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풍조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불평등을 타파하고자 한 몇몇 작가들에 의해 비교적 평등한 남성 동성애 이야기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石點頭』 14회의 「潘文子契合鴛鴦塚」, 『國色天香』의 「金蘭四友傳」¹⁵⁾, 『弁而釵』의 「情貞紀」 세 작품은 비록 각기 다른 작가들 손에서 나왔지만 비슷한 배경과 이야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 보편적인 남성 동성애 풍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세 이야기의 주인공은 「潘文子契合鴛鴦塚」의 王仲先과 潘文子, 「金蘭四友傳」의 蘇易道와 李嶠, 「情貞紀」의 鳳祥和 趙王孫이다. 이들은 모두 '학숙'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동성 관계를 맺었으며, 주동인물 왕중선, 소역도, 봉상은 피동인물인 반문자, 이교, 조왕손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후 이들 세 커플은 서로간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쳐 각기 다른 결말을 맞는다. 작품의 분석에 앞서 각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서술해 보도록 한다.

「潘文子契合鴛鴦塚」은 王仲先과 潘文子の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晉陵의 서생 潘文子는 풍류 있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 보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했다. 반문자는 학업을 위해 杭州의 학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長沙 湘潭縣의 秀才 王仲先을 만난다. 왕중선 또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반문자의

15) 『國色天香』은 본래 문인소설에 속해 있어 상술한 백화소설 작품 표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正文이 위아래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내용이 복잡하고 글의 여러 가지 문체가 들어 있지만, 소설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수록된 소설에는 話本, 傳奇小說, 假傳類의 작품과 志人, 志怪의 筆記小說이 있는데, 「금란사우전」은 이 중 화본류에 속한다. 이러한 연유로, 「금란사우전」을 『석접두』, 『변이채』의 작품과 함께 논의하게 되었다. 「금란사우전」 문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劉世德 主編,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6, 141쪽 참고.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반문자와 형제 같이 친하게 지낸다. 반년 이후,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한 왕중선이 반문자에게 고백을 하게 되고, 처음에 거절하던 반문자도 왕중선의 진심을 알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이후, 반문자를 흠모하던 무리들에 의해 두 사람의 관계가 폭로 되고, 이 일이 학숙 선생의 귀에 흘러들어가 둘은 학숙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羅浮山에 들어가 밭을 사 농사를 지으며 둘 만의 시간을 보낸다. 이후, 둘은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한 날 한 시에 죽음을 맞이한다. 집안사람들이 와서 둘을 장사 지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무덤에서 나무 두 그루가 자라나더니 가지가 얽히고 그 위에는 飛翼鳥가 깃든다.

「金蘭四友傳」은 蘇易道와 李橋의 사랑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欒城에 살던 蘇易道는 趙州 지역을 지나가다 李橋를 보게 된다. 그는 이교의 자태와 기질에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인연이 없어 서로 교제하지는 못한다. 후에 소역도는 이교의 사촌형인 杜審言의 도움으로 난성의 소역도 집에서 세 사람이 만나게 된다. 소역도는 이교의 재능과 용모가 비범한 것을 보고 그에게 사심을 품고, 수차례 시를 보내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조주에서 돌아온 소역도는 이교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이 때 崔融이 소역도를 방문한 후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같이 조주에 가 이교와 다시 만나게 해준다. 이에 소역도는 이교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시 전하지만 이교는 화를 내며 거절한다. 소역도는 이교에게 거절당한 후 상사병이 나게 되고, 이를 통해 이교는 소역도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게 된다. 이에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후에 소역도, 이교, 두신언, 최음 네 사람은 “금란사우”라는 이름으로 형제의 결의를 하게 되고, 진사에 합격해 관직을 얻고, 혼인 후 자녀를 얻는 결말을 맞는다.

「情貞紀」은 鳳祥과 趙王孫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趙王孫은 아름답게 생긴 외모로 인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었다. 조왕손은 이를 싫어해 더 규율이 엄한 학숙으로 옮기게 된다. 어느 날, 翰林인 鳳祥이 조왕손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 봉상은 원래 남색을 좋아하는 자라, 조왕손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본래 신분을 숨기고 서생으로 위장해 조왕손이 다니는 학숙에 들어간다. 한편, 조

왕손은 봉상에게 호감은 있으나 사심은 없어 번번이 봉상의 구애를 거절한다. 봉상은 이에 상사병이 걸리고 한기가 들어 병이 난다. 조왕손이 문병을 와 봉상의 모습을 보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되고 결국 둘은 관계를 맺는다. 이후 봉상과 조왕손의 정이 점점 깊어진다. 하지만 조왕손은 집에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서신을 받게 되고, 이에 둘은 이별하게 된다. 봉상은 떨어져 있는 외중에도 여러 방법으로 조왕손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봉상의 도움으로 조왕손은 결국 진사가 된다. 둘은 입신양명하여 관직에 올랐다가 말년에 사직하고 은거하며 지낸다.

줄거리를 보면 알 수 있듯, 세 편의 이야기는 당시 보편적이었던 이익을 위주로 한 남남 관계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들은 흡사 당시 유행하던 才子佳人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만남—첫눈에 반함—서로 사랑을 확인함—난관에 부딪침'의 단계를 겪는다. 다른 점은 재자가인 소설의 주인공들이 혼인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들은 그와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뿐이다. 이외에 작가들은 세 커플의 진정한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안배하였다.

첫째, 인물들 간 신분이나 집안 환경을 서로 비슷하게 설정하였다. 「반문자계합 원앙총」에서 왕중선은 王善聞의 둘째 아들로, 이 집안은 “향리에서 밭과 땅을 가지고 있는”¹⁶⁾ 제법 부유한 집안이다. 반문자의 아버지인 潘度는 만년에 첩 蕙娘에게서 아들인 반문자를 얻는다. 당시 사회에서 축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중선과 반문자의 가정환경이 모두 풍족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란사우전」 이교의 부친인 李嶽은 潯州 刺史 출신이며, 소역도의 부친인 蘇賢 또한 고관 출신으로, 이교와 소역도 두 사람 모두 관리 집안 출신이다. 「정정기」에서는 조왕손과 봉상의 가정환경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지만, 조왕손이 학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봉상은 翰林인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독서인에 속하며, 게다가 이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봉상이 서생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분이 동등했다. 이 세 커플은 비교적 동등한 집안환경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등장인물 모두 재능과 외모가 출중한 才子들로 묘사되고 있다. 「반문자계

16) 天然癡叟, 『石點頭』,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4, 309쪽. “原是鄉裏人家, 有田有地”

합원양충」의 반문자는 ‘작은 반안(小潘安)’이라 불릴 정도의 미남자이다. 또한 “5-6세에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12-13세에는 서책의 뜻에 통달하였으며, 글을 지을 수 있었다. 17세에는 진릉 지역에서 유명한 童生이 되었다.”¹⁷⁾ 왕중선은 “청아하고 수려하게 생겼으며 총명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을 줄 알았다.”¹⁸⁾ 「금란사우전」의 이교는 “9세에 능히 문장을 지을 수 있었으며, 16세에 등과하였다. 영웅호걸과 같은 활기참이 있었으며, 청아하고 고아하며 세속을 초월한 것과 같은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태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또한 “민첩하고 박학하며, 시와 부를 짓는데 능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인걸이었다.”¹⁹⁾ 소역도는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고아하였으며, 시와 부는 삼협의 거센 조류 같았고, 의론할 때 설득력 있었다.”²⁰⁾ 「정정기」의 조왕손은 “선녀도 못 따라갈 미모를 가지고 있어, 그를 보는 사람마다 혼이 나갔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삼황오제에 관한 책이나 제자백가 등등 보지 않은 책이 없었다. 불경과 현종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전심을 다해 공부하였으며, 부정한 무리들과는 교제하지 않았다.”²¹⁾ 봉상은 “관옥과 같은 생김새에, 맑고 고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다.”²²⁾ 아직 약관의 나이가 되지도 않았는데 한림이 되었으며 학숙의 선생들도 흠모할 정도의 문장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등장인물들 사이가 애정에 기반하고 있어 서로에게 충실하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말의 남성 동성애 관계는 이익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세 커플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당시 보편적으로 나타나던 남남 관계와는 확실히 달랐다. 「반문자계합원양충」의 왕중선은 비록 처

17) 전계서, 306쪽. “到五六歲, 就上學讀書. 到了十二三歲, 通曉書義, 便會作文. 十七歲上, 在晉陵也算做是有名的童生.”

18) 전계서, 309쪽. “生得清秀聰明, 自小會讀書”

19) 吳敬所, 『國色天香』,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4, 587쪽. “九歲能屬文, 年登二八, 而神氣英傑, 有清高絕塵之姿, 有溫柔雅淡之態”, “性敏學博, 善於詩賦歌調, 非天挺人傑者乎”

20) 전계서, 587쪽. “年弱冠時, 貌亦卓雅, 賦詩倒三峽之狂瀾, 議論驚四筵之雄辯”

21) 醉西湖心月主人, 『弁而釵』, 侯忠義 主編, 『明代小說輯刊』第二輯, 成都, 巴蜀書社, 1995, 797쪽. “貌姑仙子不過是也. 人及見之, 莫不消魂”, “讀書好學, 三墳五典, 諸子百家, 莫不窮究. 內典玄宗, 亦所諳明. 潛心功名性命, 不與匪人交接.”

22) 전계서, 799쪽. “面如冠玉, 神若秋水”

음에 반문자의 미모를 보고 사심이 들었으나, 반문자에 대한 감정에는 욕정과 함께 애정도 있었다. 왕중선은 반문자와의 대화에서 자주 '情'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생 정이라는 이 글자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화류계는 가장 박정한 것이라 생각해 좋아하지 않는다"²³⁾고 한다. 또한, 왕중선은 반문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반문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기다린다. 심지어는 반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평생 장가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에 반문자도 마음이 움직여 서로 은애하는 사이가 된다. 이들의 사랑은 결말 부분의 '連理枝'와 '飛翼鳥'를 통해 그 깊이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 이 두 단어는 당나라 때 시인 白居易의 『長恨歌』에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리지와 비익조는 '飛翼連理' 혹은 '連理飛翼'이라는 말로 부부의 사이가 깊고 화목하거나 헤어질 수 없는 연인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이러한 비유를 남성 커플에게 썼다는 것은, 이들의 사랑이 다른 이성 커플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사랑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란사우전」 소역도 또한 이교의 용모에 마음이 동해 상사병까지 나게 된다. 계속 거절하던 이교도 소역도의 마음이 진실인 것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정정기」의 봉상도 조왕손의 미모에 반해 신분을 감추면서까지 조왕손에게 접근한다. 이후, 조왕손도 이교처럼 봉상이 자신 때문에 상사병을 앓자 그의 구애를 받아들인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봉상 이외에 나머지 인물들은 서로를 알기 전까지는 남성 동성애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문자와 조왕손은 미모 때문에 자주 다른 남성들에게 구애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진실 된 감정이 아니라 호기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남성 동성애 풍조 속에서라면, 그들은 자신의 미색으로 성공이나 돈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었다. 반문자의 외모가 뛰어나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문하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고, 중년의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사회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으며, 부귀한 자들은 그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²⁴⁾ 하지만 반문자는 이렇게 청을 넣어오는

23) 天然癡叟, 『石點頭』, 313쪽. "平生極重情之一字, 那花柳中是最是薄情, 又小弟所不喜"

24) 天然癡叟, 『石點頭』, 306쪽. "年紀大些的要招他拜從門下, 中年的拉去入社會考, 富貴的又要請來相資."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여 자신의 힘으로 입신양명하기를 바랐다. 이교와 조왕손 또한 친구를 가려 사귀었으며, 자신의 동성 연인을 만나기 전에는 동성에 경험이 없었다. 주동인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정기」의 봉상을 제외한 나머지 두 주동인물, 즉 왕중선과 소역도는 비록 상대방의 미모에 대한 욕정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들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동성에 경험이 없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정정기」 봉상의 감정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봉상은 원래 남색을 좋아하고 매우 음란한 자였다. 조왕손과 맺어지기 전에 그는 자신의 욕정을 풀기 위해 수차례 노복들과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조왕손과 이어진 이후, 그의 행동에 큰 변화가 생긴다. 조왕손 이외의 다른 남성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조왕손의 과거 합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이 세 쌍의 남성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는 일 없이 서로에게 충실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 작품의 작가들은 아직 명말이라는 봉건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남성 간의 진실 된 사랑을 그리고자 하였으나, 현대의 시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그리지는 못했다.

3) 명말 남성 동성애에 대한 복잡한 서술 심리 분석

명말에는 쾌락적인 풍조가 전 사회를 뒤덮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학의 영향을 받아 금욕적인 풍조가 팽배하기도 했다. 각종 색정소설, 춘궁화, 창기와 연동이 범람하였으며 여러 가지 기이한 성적 자극을 추구하는 한편, 권선서 등 금욕을 강조하는 저작물 또한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말 문학작품의 내용을 보면 한 쪽에서는 절제와 도덕교화에 힘썼으며, 다른 한 쪽에서는 육념과 성애를 중시하게 되었다. 명말 작가들은 독서인들 사이의 동성애 이야기에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였지만, 시대의 틀에 갇혀 진정 평등한 사랑을 묘사하지는 못했다. 이들의 시

대적 국한성은 두 가지 부분, 즉 각 인물 묘사에 대한 모순적 서술과 남성 동성애에 대한 모순적 태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인물 묘사에 대한 모순적 서술

「潘文子契合鴛鴦塚」, 「金蘭四友傳」, 「情貞紀」 세 편의 이야기는 독서인들 사이의 동성애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가정환경이나 신분은 비교적 평등하게 설정되어 있다. 명말 유행하던 남성 동성애의 주인과 노복, 대노관과 소관을 대표로 하는 상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세 편 이야기의 인물의 신분 설정은 시대적 제한을 어느 정도는 돌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평등하게 보이는 인물들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모순점이 드러난다.

첫째, 주동인물과 피동인물의 연령에 있어 하극상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작가가 임의적으로 연령을 바꾸어 설정하기도 하였다. 본론 첫 부분의 명말 보편적 남성 동성애 양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말 소설 작품에 나타난 주동인물과 피동인물의 연령은 기본적으로 10세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피동인물의 경우 대부분이 10대 초중반의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어린 나이대의 ‘소년’들이다.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세 작품의 등장인물 연령을 각각 살펴보면 「반문자계합원앙총」의 왕중선 19세, 반문자 17세, 「금란사우전」의 소역도 20세, 이교 16세, 「정정기」의 봉상 20세 미만, 조왕손 15세로 설정되어 있다. 각 작품의 주동인물과 피동인물의 연령차가 명말의 보편적인 남성 동성애 관계에 서처럼 10세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동인물이 연상, 피동인물이 연하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더불어 일부 작가는 주동인물과 피동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연상연하’의 규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인물 설정을 다시 하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먼저 「금란사우전」의 인물의 연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때 시인 杜審言, 李嶠, 崔融, 蘇味道 네 사람을 일러 ‘文章四友’라 칭했는데, 본편에서 말하는 ‘金蘭四友’가 바로 이 네 사람이며, ‘蘇味道’를 ‘蘇易道’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다. 작가는 역사상의 인물을 통해 작중 인물을 구상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작가는 역사적 인물인 소미도와 이교의 연령에 변화를 주었다. 역사 속의 이교는 문장사우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 그는 唐太宗 貞觀 19년-20년 사이(645-646년)에 태어났으며, 소미도는 정관 22년(648년)에 태어났다.²⁵⁾ 실제로 이교가 소미도 보다 2-3세 정도 연상인 것이다. 하지만 소설 속의 이교는 피동인물, 소역도는 주동인물에 속하기 때문에 작가는 두 사람의 나이를 바꾸어 이교는 16세, 소역도는 20세로 다시 설정했다.

『반문자계합원양총』의 반문자와 왕중선의 이야기는 원형 고사가 존재하는데, 北宋 『太平廣記』 389권 「塚墓一·潘章條」와 元代 林坤의 『誠齋雜記』에도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²⁶⁾ 명대에 이르러서는 풍몽룡이 이 이야기를 『情史·情外類』에 기록하였다. 각 시기별 이야기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고 몇 글자만 바뀐 부분이 있으며, 『정사·정외류』에 기록된 반문자와 왕중선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潘章은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어, 당시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였다. 초나라의 왕중선이 그 이름을 듣고 친구가 되고자 하여 찾아와 그와 함께 공부했다. [이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하여, 그 정이 부부와 같아, 같은 베개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으며, 매우 사이좋게 지냈다. 후에 같은 날 세상을 떠나 집안사람들이 이들을 애도하고 羅浮山에 합장했다. 홀연 이들의 무덤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더니, 줄기와 가지 이파리까지 서로 얽혔다. 사람들이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共枕樹라 불렀다.²⁷⁾

『정사』에 실린 이야기는 『석점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짧은 편이다. 『석점두』의 작가인 天然癡叟는 원형 이야기에 여러 가지 설정을 더하였는데, 그 중 주목해야 할 점이 인물의 연령 설정이다. 천연치수는 원형이 되는 반장 이야기에 당시 유행하던 남성 동성애를 덧입히면서 이야기의 풍부함을 더하고 있다. 그와

25) 문장사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鄭伯勤, 「論“文章四友”」, 『文學遺產』, 1995, 第4期 참조.

26)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137쪽.

27) 馮夢龍, 『情史·下冊』, 長沙, 嶽麓書社, 1986, 847쪽. “潘章少有美容儀, 時人竟慕之. 楚國王仲先聞其名, 來求其友, 因原同學. 一見相愛, 情若夫婦, 便同衾枕, 交好無已. 後同死而家人哀之, 因合葬於羅浮山. 塚上忽生一樹, 柯條枝葉, 無不相抱. 時人異之, 號爲共枕樹.”

중에 주인공인 왕중선과 반문자의 연령과 신분, 가정환경에 대해 세밀하게 설정을 하면서 신분과 가정환경은 비교적 동등하게 설정하였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주동 인물인 왕중선을 연상으로 피동인물인 반문자를 연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령 설정은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남남 사이의 고정된 상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정기」의 주동인물 봉상과 피동인물 조왕손의 연령 또한 위 두 작품과 다르지 않다. 작가들은 평등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주동·피동의 관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 등장인물의 신분과 가정환경 재능 등의 평등한 설정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두 남성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이 평등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이는 신분이 평등하지 않은 무리, 즉 일반 백성이나 소관들과 권력 있는 향신들의 관계처럼 신분이나 권력 재력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진정한 감정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소설 전 권에서 남성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변이채』의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변이채』의 작가는 ‘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작가는 소설 1회에서 이 소설을 지은 대의를 “정의 합치에서 시작하고, 정의 완전함으로 마무리 짓고, 남풍에 색을 더하였다.”²⁸⁾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소설 작품 속의 네 가지 이야기에 모두 ‘정’이라는 글자를 넣고 「情貞紀」, 「情俠紀」, 「情烈紀」, 「情奇紀」라 명명하고, 모두 남성들 사이의 깊은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정협기」²⁹⁾에서는 문무에 모두 능통한 張機와 名士 鍾圖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며, 종도남이 자신의 욕망

28) 醉西湖心月主人, 『弁而釵』, 797쪽. “始以情合, 終以情全, 大爲南風增色”

29) 「정협기」는 張機와 鍾圖南에 대한 이야기이다. 天津의 張機는 문무에 뛰어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장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용사 王飛豹와 그 두 딸인 女英과 女傑을 얻는다. 남풍을 매우 좋아하는 鍾圖南이 수를 써서 장기와 성관계를 맺는다. 장기는 종도남의 실수를 눈 감아 준다. 한편 왕비표가 상산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장기가 병사들을 끌고 가서 구해 주었고, 종도남과 헤어진다. 종도남이 경사에 시험을 보러 가, 이갑으로 합격하여 한림이 된다. 몇 년 후 장기도 진사가 되었는데 섬서 지방에서 급보가 와, 종도남과 합력해 난을 평정한다. 종도남과 장기 둘 다 이전처럼 잘 지내게 되고, 둘 모두 사직을 하고 은거하여 자녀들끼리 서로 맺어주고 대대손손 잘 지낸다.

을 채우기 위해 장기를 범하는 일방적인 관계이다. 종도남이 장기를 강제로 범한 후, 장기는 화가 났지만 종도남이 자신에게 품고 있던 애정에 대한 말을 듣고 한 번의 관계를 눈감아 준다. 이후 이 둘은 '친구'가 되고 다시는 어떠한 성적인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즉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정'은 애정이 아닌 우정인 것이다. 「정렬기」³⁰⁾와 「정기기」³¹⁾의 주인공들 사이의 관계는 「정협기」처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들의 신분은 才子와 배우, 혹은 才子와 남자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상하 계층 분명한 관계이다. 또한 피동인물이 위급할 때 주동인물이 그를 구출해 주고, 이에 피동인물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동인물에게 자신의 몸을 바친다. 결과적으로 「정협기」의 장기와 종도남의 신분적 차이는 크지 않으나, 한쪽의 일방적인 정욕에 의해 성관계가 한 번 발생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관계도 발생하지 않는 '우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렬기」와 「정기기」도 피동인물들이 비록 문인 집안 출신이기는 하지만, 주동인물을

30) 「정렬기」는 雲天章과 文雅雋에 관한 이야기이다. 서생 문아전의 집안이 화를 당해 남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다 선박비가 다 되어 문아전은 戲班에 들어가 창을 하는 묘이 된다. 그러다 才子인 雲天章과 알게 된다. 이후 문아전은 희반에서 못된 손님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고하게 쫓겨나게 되었는데, 운천장이 그를 구해준다. 이 둘은 남경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양주로 떠난다. 문아전은 운천장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그에게 몸을 바친다. 그리고 돈이 또 떨어지자 희반에 가서 공연을 하고 운천장의 공부를 원조해 준다. 王府의 儀賓인 乚氏가 문아전이 마음에 들어 자기 집에 있으라고 강제로 협박한다. 문아전은 마씨에게 운천장이 경사에 갈 수 있게 돈을 대주라고 하고 의빈은 이에 응한다. 이에 문아전과 운천장이 이별하게 된다. 며칠 후 의빈이 문아전과 동침하려 하자 문아전은 자결하고, 그의 영혼은 자향대사에 의해 사람의 형태가 되어 운천장과 다시 만나게 된다. 문아전의 도움으로 운천장은 진사가 되고 처도 얻는다. 문아전은 가짜 몸으로 운천장과 함께 하고 3년 후 남해의 水神總管이 된다. 운천장은 문아전을 도와 의빈에게 복수를 하고, 의빈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31) 「정기기」는 匡鼎과 李摘凡의 이야기이다. 소년 李摘凡은 아버지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 몸을 팔고 南院에 들어가 男妓가 되고, 남원의 으뜸이 된다. 그러다 才士 匡鼎이 그를 동정하게 되고, 이적범은 이에 감동을 받아 자원해 광정과 동침을 하게 된다. 이후 광정이 이적범을 기적에서 빼주고, 적범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여장을 하고 희첩의 신분이 되어 광정을 모신다. 몇 년 후, 광정이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적범이 자진해서 고아(광정의 아들)를 키운다. 수 년 후, 광씨의 아들이 장원이 되어 아버지의 원한을 씻게 되고,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적범은 홀연히 떠난다. 이적범은 산에 들어가 도를 닦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옥화진인의 환생이었기 때문에, 이후 신선이 된다. 광정은 백세까지 살다, 어느 날 이적범이 만나자고 하는 소식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만났을 당시 신분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동인물이 주동인물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관계를 맺고 있어 진정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명말 작가들이 당시 성행한 남성 동성애 풍조의 일반적인 양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연상 연하로 굳어진 주동인물과 피동인물의 연령 차이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알려준다. 더불어 신분적인 평등을 기본으로 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 또한 남성 문인들이 가진 시대적 한계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작가들 대부분이 남성 문인으로,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고 주동인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신분이 낮아 지위와 권세와 부가 없는 피동인물들의 삶이나 가치관 혹은 감정을 체험해 보지 못했고, 이 때문에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남성 동성애에 대한 모순적 태도

비록 소설작가들이 독서인들 사이의 진정한 감정에 대해 묘사하기는 하였지만, 명나라 말기의 도덕 교화의 영향으로, 이들 또한 남성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중국인들은 남성 동성애에 대해 대체로 관용적인 편이었는데, 이는 남성 동성애를 통해 자녀를 낳는다거나 해서 종실규범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말 남성 동성애 풍조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종실규범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萬曆 연간 薑淮의 『岐海瑣談』 7권에 보면 “요즘 甌 지역[지금의 浙江省 溫州]에 이 풍조[남색 풍조]가 성행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때문에 싸움이나 살상이 일어나 관아에 소송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건과 호응해, 절강성의 몇몇 정통 인사들은 남색 풍조 성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만력 연간 李翊은 『戒庵老人漫筆』 6권에서 당시 유행하던 36조의 가훈을 적고 있는데, 그 중 5조가 “집안에 준수한 노비가 없게 하라[家無俊仆]”, 24조가 “어린 노비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악습이 없게 하라[家僮無鮮衣惡習]”고 적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 남자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러한 습속이 정통 문인들을 얼마나 공황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알 수 있다.³²⁾

「반문자계합원양충」의 반문자와 왕중선은 부모와 약혼녀 그리고 독서인의 인생 최대의 목표인 과거를 모두 버리고 둘만의 세계인 '羅浮山'으로 도망친다. 사랑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특히 반문자의 사랑의 도피로 인해 반씨 집안은 대가 끊길 위협에 처한다. 중국 속담에 “불효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대를 잊지 못함이 가장 큰 불효이다(不孝有三, 無後爲大)”라고 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가정과 종실규범을 버렸다는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석점두』의 작가는 소설 시작 부분에서는 “응당 천지에는 음양의 조화가 있고, 이는 부부사이의 오류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올바른 도리임은 말할 것도 없다”라며, 시작 전부터 앞으로 서술될 사랑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둘이 라부산으로 떠나기로 작정한 이후에는 “아까운 이 한 쌍의 소년 자제들이 후정화(後庭花)³³⁾의 금슬을 위하여, 부모와 아내를 버리고, 빈 산중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다 수작의 결과라. 어찌 천지간의 큰 죄인이 아니겠는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이상한 짓을 벌였으니, 고금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로구나!”³⁴⁾라며 모든 것을 버린 이들에 사랑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듯 작가는 작품의 시작부분 및 작품 사이에 반문자와 왕중선의 사랑에 대해 인간의 바른 道와 종실규범에 위배된다며 비판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이야기 전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자면, 이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찬사와 허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천연치수 또한 사회적인 비난이 두려워 비판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금란사우전」과 「정정기」의 작가는 「반문자계합원양충」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데, 바로 두 주인공의 관계를 ‘우정’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봉상은 조왕손을 손에 얻기 위해 이미 한림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생의 신분으로 학숙에 들어가고, 소역도는 이교 때문에 상사병이 난다. 이후 정인으

32)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130-131쪽 참조.

33) 향문을 가리키는 은어. 이후 향문성교를 하는 남색 관계를 가리키게 된다.

34) 天然癡叟, 『石點頭』, 317쪽. “話說自有天地, 便有陰陽配合, 夫婦五倫之始, 此乃正經道理, 自不必說”, “可惜一對少年子弟, 爲著後庭花的恩愛, 棄了父母, 退了妻子, 卻到空山中, 做這收成結果的勾當. 豈非天地間大罪人, 人類中大異事, 古今來大笑話!”

로 맺어지지만 다른 이들의 질투와 간섭 때문에 둘의 관계가 밝혀져 이별하게 된다. 이들은 서신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한편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속 공부를 하고, 마침내는 '우정'의 관계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은 다시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별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 이들은 입신양명을 위해 힘써 공부하고, 양가집 규수와 결혼하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를 서로 혼인시켜 사돈지간이 된다. 이러한 결말은 작가가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신양명' 혹은 '혼인하여 후대를 잇는' 행복한 결말을 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가는 이러한 행복한 결말을 통해 남성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속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 작품의 작가들은 남성 동성애가 성행하는 풍조 하에서, 남성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들은 아직 명말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작품에 표현된 남성 동성애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결론

남성 동성애 풍조는 명나라 말기 온 사회를 휩쓸었다. 이러한 풍조는 작품 창작에도 영향을 주어 여러 소설 작품에서 남성 동성애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인정소설은 물론 신마소설, 영웅소설까지 한 두 번은 이 풍조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소설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은 당시 사회 풍조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동성애 관계는 불평등하였으며, 주동인물과 피동인물의 신분이나 가정환경의 차이, 연령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주동인물 대부분이 양성애적인 성 취향을 가지고 있어, 피동인물의 여성화를 촉진시켰다. 게다가 보편적으로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계의 지속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작품에서 평등한 동성애 관계를 다루고자 하였는데, 「潘文子契合鴛鴦塚」, 「金蘭四友傳」, 「情貞紀」 등의 작품에서 비교적 평등한 남성 동성애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세 작품 속 동성 연인들은 가정환경이나 신분 면에서뿐 아니라 외모와 재능 또한 비슷하게 출중해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또한, 감정 면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는 방탕한 생활을 접고 물심양면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가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의 도피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등한 상태에서 맺어진 이러한 사랑은, 신분의 역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령 본래 신분인 문인 집안 출신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만난 시점에서의 신분 차이로 인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작가들이 남성 동성애를 서술하면서 사회적인 비난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 스스로 작품 속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작중 인물들의 아름다운 결합 대신 종실규범을 지키고 이전의 사랑의 감정을 우정으로 귀속시키는 결말을 연출한다. 이로써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명말' 이라는 틀 속에 살고 있던 작가들의 시대적 한계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서술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관계를 타파하려 시도하며 남성 간의 진정한 사랑을 그려내려 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의 문학적 가치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 天然癡叟, 『石點頭』,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4.
 吳敬所, 『國色天香』,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4.
 醉西湖心月主人, 『弁而釵』, 侯忠義 主編, 『明代小說輯刊(第二輯)』, 成都: 巴蜀書社, 1995.
 謝肇淛, 『五雜俎·卷八』,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馮夢龍, 『情史·下冊』, 長沙: 嶽麓書社, 1986.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 張在舟, 『曖昧의 曆程—中國古代同性戀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1.
- 施曄, 『中國古代文學中的同性戀書寫研究』, 上海: 上海人民文學出版社, 2008.
- 李銀河, 『同性戀亞文化』,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9.
- 劉世德 主編,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6.
- R. H. 반 홀릭, 장원철 역, 『중국 성풍속사』, 서울: 까치, 1993.
- 우춘춘, 이월영 역, 『남자 남자를 사랑하다』, 서울: 학고재, 2009.
- 조너선 D. 스펜스, 이준갑 역, 『릉산으로의 귀환』, 서울: 이산, 2010.
- 티모시 브룩, 『쾌락의 혼돈』, 서울: 이산, 2010.
- 유달림, 강영매 역, 『중국의 성문화』, 서울: 범우사, 2012.
- 鄭伯勤, 「論“文章四友”」, 『文學遺產』 제4기, 1995.
- 吳存存, 「龍陽逸史與晚明的小官階層」, 『中國文化』 제2기, 1995.

〈中文提要〉

男性同性戀現象在晚明風靡整個社會, 得到了社會的承認, 成了一種風氣. 士人是其中最為活躍的領導時代潮流的階層, 而他們通過圈養小宦, 擁有同性情人來彰顯身份. 這風氣影響到小說創作, 有些作品開始涉及男性同性戀故事. 當時男性同性戀關係在雙性戀的大背景下可分為主動角色和被动角色. 同時, 社會的寬容和承認只針對主動一方而言, 被动一方往往會被人歧視. 有些作品卻打破這種不對等的情人關係, 他們描寫的同性故事是發生在讀書人之間的, 雙方身份對等, 存在真情. 但是還存在時代的限制, 往往表現出比較矛盾的敘述態度. 我們通過比較小說作品中的男性同性戀普遍形象與特殊的形象, 由此可見當時讀書人對男性同性戀的複雜敘述態度與心態.

關鍵詞: 晚明小說, 同性戀, 男色, 敘述態度, 比較研究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ale Homosexual Novels in the Late Ming Dynasty

Choi Yoon-ju

In the late Ming Dynasty, Male Homosexuality has been received social approval, it has become a trend. The scholars are among the most active leaders in the trend of the times. They by breed “xiaoguan”, with Gay lover reveals the own identity. This trend affects the creation of novels, some of the works began to describe male homosexual stories. At that time, the male homosexu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the active role and the passive role in the background of the bisexual. However, it attempts to break through the unequal relationship with some of the work. But also in the era of restrictions, often expressed a more contradictory narrative attitude. This paper be analyzed the specific content of each story, through the character description and emotion, the characters and so on. As a result, we could look intelligentsia’s complicated narrative attitude and mental state approach to male homosexuality. This article was compared with the common image and the special image of the male homosexual in the novel, as a result, we could look confucian scholar’s complicated narrative attitude and mental state approach to male homosexuality.

Key Words: Late Ming Dynasty novel, male homosexuality, pedication, narrative attitude, comparative study

이 논문은 2016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3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7월 3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